

안정지원 경향… 상식밖 지원율 보이는 학과 피해라

수능 바뀌기 전 마지막 정시… 21일부터 원서접수

전형 요강·모집군 특징 등 지원동향 점검 꼼꼼히

오는 21일부터 201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올해는 수능 제도가 바뀌기 전 마지막 해다 보니 정시에서 안정지원하려는 경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시모집에서 수험생들의 지원 동향, 경쟁률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지원전략을 세우면 실책할 확률이 높다”며 신중한 선택을 강조한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지원원에 작성 고려사항을 간추린다.

◇경쟁률 너무 높거나 낮은 모집단위 경계해야=지원자간 자신의 위치와 전형 방법의 변화를 살펴봤다면

이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합격 성적이 크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 실제 지원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첫째 고려해야 할 것은 지원율이다. 지원율이 높아지면 합격 성적이 상승하고 낮아지면 합격 성적이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지원율이 3대1 미만일 경우 주가합격까지 가게 되면 합격 성적은 크게 내려간다.

또한, 전년도에 합격 성적이 낮았던 모집단위더라도 올해 지원율이 올라가면 합격 성적은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대학들이 발표하는 실시간 지원율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전년도 같은 시간대에 비해 지원율이 높다면 합격 성적이 높아지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합격 성적은 다소 낮아질 수 있다. 단, 실시간 지원율이 지난치게 낮은 모집단위의 경우 접수마감 전에 학생들이 몰려 최종 지원율이 크게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안정권 접수대가 아니라면 지난해와 비교해 지원율이 지난치게 높거나 낮은 모집단위는 피하는 것이 좋다.

◆모집인원 유의해야=합격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모집인원이다. 모집인원이 줄면 추가 합격 인원이 줄고 합격 성적은 다소 상승할 수 있다. 특히, 모집인원이 10명 미만인 모집단위의 경우 지원자에

따라 성적 변동이 커 합격 성적을 예상하기 어렵다. 변수를 줄이려면 모집인원의 변화가 크지 않고 많은 지원율을 선발하는 모집단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진사학 입시전략연구소 김희동 소장은 “정시 안정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자 중 상대적인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지원율이 지난치게 높거나 낮은 모집단위는 피하고, 가능한 모집인원이 많은 모집단위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목표대학 지원동향 점검= 다양한 변수가 달라 영향을 미친다. 입시요강뿐 아니라 최근 지원 동향까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최근 입시결과를 보면 수능 반영 영역 수가 적은 대학, 수능 영역을 수험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대학 등

은 예외 없이 경쟁률이 높았다.

대학 전형 방식에 따라 수험생들이 지원율을 고려하거나 선호하는 현상이나 타나다. 대학별 전형 요강과 모집군별 특징을 고려해 올해 지원자들의 동향을 예측하는 것이 좋다.

주가합격자 비율도 확인해야 한다. 복수지원 구조에서는 1차 합격자 중 복수 합격자들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다.

대학이 발표하는 실시간 경쟁률의 변화도 잘 살펴봐야 한다. 작년 같은 시간대에 비해 경쟁률이 높다면 합격 성적이 높아지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합격 성적은 다소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실시간 경쟁률이 지난치게 낮은 모집단위는 접수 마감 전에 학생들이 몰려 최종 경쟁률이 크게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과학대 ‘꿈먹고…’ ‘여행’ 공연 관객 호응

전남과학대학교 방송모델과는 최근 이틀간 씨티아트홀에서 연극 ‘꿈먹고 알먹고’ 와 ‘여행’ 등 두 편을 공연했다.

학과장인 김유석 교수 연출로 만들어진 두 편의 연극은 지도교수들과 학생들의 지난 2년간의 집념의 결산이다.

특히 ‘여행’은 고 윤영선 작가가 낡긴 최고의 리얼리즘으로 평가받은 작품으로 2006년 서울 연극제 우수작품상, 희곡상, 무대예술상 수상을 비롯해 독일 중국 등지에서 초청받은 걸작으로 심혈을 기울여 무대에 올린 기대작이다.

조인성 등 름스타를 배출해 방



송·모델인 양성에 명문으로 자리 잡은 방송모델과는 지난 99년 우암극회를 창립, 금년들어 12번째 공연을 마련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우암문화재단, 광주·전남북 고교생에 장학금

재단법인 우암문화재단은 17일 오후 광주·전남북지역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우암문화재단은 지난 2009년에 설립돼 인재 육성사업 발전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장학금 지원은 광주·전남북지역 고등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을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아 이뤄졌다.

이번에는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 재단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우암장학금 10명과 우암



인재장학금 3명 등 총 13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미담장학회, 교육기부대상 교과부장관상



대학생들로만 구성된 교육기부단체인 전남대 미담장학회(회장 채민석, 경영학부3)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미담장학회는 가정형편상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멘토역할을 해온 자발적 교육봉사모임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광주대 호텔조리학과(학과장 김현철)가 광주·전남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 외식산업 규모 확대에 따른 관련 종사자들의 조리·경영·서비스 측면의 전문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보고 올해 이 사업을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 중이다.

지난 7월 7개 기관을 지정한 데 이어 최근 광주대 등 5개 기관을

추가 지정했다.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면 외식산업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외식산업 종사자의 취업·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연수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광주대 호텔조리학과는 한정식, 맥걸이, 김치, 무등산보리밥, 오리탕 등 이른바 광주 5미(味)를 중심으로 지역 대표음식 보급을 위한 전문요리를 앙성할 계획이다.

김현철 학과장은 “지식과 가치를 주구하는 창조적인 전문 외식 인을 만들어 내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국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을 기위해 방침이다.

또 지역 대표음식은 아니지만 광주·전남의 풍부한 해산물을 재료로 한 전문음식 개발, 상추튀김 등 독특하고 좋은 맛을 내는 음식의 발굴 및 보완 등을 통해 전문조리사를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김현철 학과장은 “지식과 가치를 주구하는 창조적인 전문 외식 인을 만들어 내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Transcuber’팀 큐브위성 최종경연 출전

조선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Transcuber’(지도교수 오현웅) 팀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최한 ‘2012 큐브위성 경연대회’ 최종경연 출전 팀에 선정됐다.

큐브위성 경연대회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큐브위성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 우주개발 전문인력으로 키우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선정됐다.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팀을 구성해 가로·세로·높이 10cm의 정육면체 형상의 초소형 위성인 큐브위성

(CubeSat)의 개발능력을 겨루는 것으로, 13개 대학 총 17개 팀이 참가한 1차 경연에서 위성 임무설계 실력을 인정받은 6개 팀이 선정됐다.

첫 번째 임무는 Transcuber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해 우주공간에서 지구를 배경으로 태극기 영상과 조선대로고를 촬영해 지상으로 전송하는 것 이고, 두 번째 임무는 탑재 카메라에서 지구영상 획득이 가능하도록 지구에 대한 카메라의 시야각을 확보해 지구 관측 영상정보를 지속적으로 지상으로 전송하는 것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동신대 정찬종 학생, KPGA 풀시드권 획득

동신대학교 생활체육학과가 KPGA 정규 1부 투어 풀시드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를 배출해낸는 등 잇따라 좋은 성과를 내면서 골프 명문 학과로 발돋움 하고 있다.

동신대 생활체육학과에 따르면 지난해 KPGA 프로로 데뷔한 2학년 정찬종 학생이 최근 KPGA 정규 1부 투어 전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풀 시드권을 따냈다.

KPGA 풀시드는 KPGA 프로 회원 1000여명 가운데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 45명에게만 주어지는 정규 1부

투어 출전권을 의미한다.

동신대 생활체육학과는 골프부가 창단된 지 10여 년 동안 25명의 프로 및 세미프로를 배출한 바 있다. 이를 가운데 KPGA에서 3명, KLPGA에서 1명이 활약하고 있으며 출전생들이 이 지역 골프연습장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또 현재도 9명의 골프 선수가 재학 중인데 이 가운데 1명이 KPGA 프로 자격을, 5명이 세미프로 자격을 따는 등 6명의 학생이 골프 관련 자격을 획득한 상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배터리 저장물질 단순공정 합성기술 개발



으로 기대된다.

최근 2차전지 등 에너지 저장과 변환시스템 발전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특별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가진 기능성 나노물질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러나 이 같은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공정과 후처리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대량생산을 통한 상용화에 많은 제약사항이 따르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풀리올’이라는 용어를 이용해 짧은 시간에 얻을 수 있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남평 강변도시를 주목하세요!



투자.. 지금이 기회!!

혁신도시 보다 저렴한 분양가!

광주시 남구와 공동학군!

대단위 아파트 단지 분양예정!

관광호텔, 오피스텔 신축!

점포겸용 주택 4층, 근생, 상업용지!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문 의 : 011-684-3886

급매 상가/원룸

- ▶ 총 합계 : 보증금 4,700만 원/세794만 원
- ▶ 1층 평의점 1개 원룸 21개, 투룸 4개
- ▶ 토지면적 : 330.58㎡ (100p)
- ▶ 건축면적 : 737.19㎡ (223p)
- ▶ 매매가 6억 9천7백만 원 4천7백만 원, 월세 794만 원 응모금과 보증금 공제하면 실투자금 3억9천9백만 원 대출이자 월 122만 원 공제하면 월순수익 672만 원 년수익률 20% 편의점 운영하면서 원룸 관리하시면 월수익 1,000만 원 이상 가능함.

문 의 : 011-684-3886

모텔 매매

- ▶ 아시아문화전당 전대병 윤부근
- ▶ 토지 89P 건물 233P
- ▶ 5층 객실21개 지하 노래 훌 엘리베이터 주차장 각 층 페리시설 완비 최근 리모델링 완료
- ▶ 매매가 4억9천 원자 2억3천 5백 평 월세2억 원 250천원
- ▶ 문 의 : 011-684-3886
- ▶ 소비자에게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 ▶ 다만, 사업자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가 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 매

“담양” 무인텔

대 지 : 5,048㎡

연건평 : 2,474㎡

객 실 : 32개

현 성업중

상무지구에서 15분

매매가